

‘복지 사각’ 고아소녀들 정신병원 강제입원 ‘충격’

리뷰 2018 이 사건

〈3〉 ‘성빈여사’의 아동 학대

7년전 물고문 당한 학생들에 또 자행
원장·교사 2명 우여곡절 끝 검찰 송치
매년 보조금 수억원씩 지원한
광주시·동구청은 사실 파악도 못해

올해 불거진 광주 YWCA 산하 여자 어린이 양육 시설 ‘성빈여사’ 학대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원장의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원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는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성빈여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소녀들은 해당 양육시설 A원장 등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하거나 당할 뻔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를 당한 대부분의 원생은 돌봐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고아소녀들로, 성빈여사가 아니면 머물 곳이 없는 탓에 학대를 견뎌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원생 중 일부는 지난 2011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로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냉장고에서 초코바를 몰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초코 바를 먹어야 하는 학대 등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아이들은 구토까지 했지만, 가족행위는 계속됐다고 한다. 또 아이들의 발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물을 채

운 고무 대야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등 물고문도 자행됐다. 이를 보다 못한 내부 직원의 고발로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학대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가 바뀌는 등의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7년이 지난 올해 해당 원생들이 아직도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광주일보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그동안 침묵했던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앞다퉀 해당 양육시설 원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직권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YWCA 사회복지법인에 권고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 조치 후 고아 소녀들은 되레 내부 고발자로 찍혀 2차 피해 등을 입기도 했다. 매년 해당 시설에 수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주시와 동구청도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피해 원생의 제보를 받은 YWCA 솔빛타운 시설은 지난 9월 성빈여사 원장인 A씨 등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뒤늦게 광주시·동구청·아동복지 전문기관 등의 합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2명이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동구청의 감사에서는 원장 A씨가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9일에는 광주동부경찰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성빈여사 원장 A씨와 생활지도교사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원생의 상담일지와 진단서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된 성빈여사 원장 A씨에 대해 무급(無給)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청년 플라마켓 아시아문화원과 광주테크노파크·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등이 주관한 ‘광주청년 플라마켓’이 지난 2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80여 개 청년 창업 기업이 참가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윤명성 전남경찰청 2부장 경찰청 대변인 전보...경무관 58명 인사

경찰청이 윤명성 전남경찰청 제2부장을 경찰청 대변인으로 전보하는 등 경무관 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인으로 총경 승진·전보 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한 15명을 포함

해 경무관 58명의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내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명성 전남청 제2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빈 자리는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한 박지영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맡게됐다. 또 양성진 서

윤경철청 보안부장이 광주청 제2부장으로, 이명호 전남청 정보과장이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경무관은 경찰 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침샘·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1천여명 유공자 혜택

그동안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엽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상(戰傷)·공상(公傷) 군경과

동일한 상이 등급 체계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증 수당도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급으로 변경·지급된다. 또 유가족의 보훈 병원 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해왔다.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계 없는 마운트 혁신의 시작
풀프레임 미러리스

찍고 싶은 것들을 완벽히 담고 싶다는 당신의 생각에 니콘이 혁신적 풀프레임 미러리스 Z를 제안합니다. NIKKOR F렌즈*와 호환이 가능한 55mm 마운트로 모든 순간 경이롭게 표현되는 당신의 크리에이티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나가는 니콘의 기술력입니다.

CAPTURE TOMORROW

고화소 풀프레임 미러리스 Z 7
올리온마운트 풀프레임 미러리스 Z 6

NEW-Z 풀프레임 시스템 | NEW-Z 마운트 & NIKKOR Z 렌즈 | NIKKOR F 렌즈 호환* | QUAD VGA EVF (3.6M화소 전자뷰파인더) | 이미지 센서 시프트 방식 5축 VR | *렌즈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니콘이미징코리아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4층 [대치동 892] TEL. 080.800.6600 FAX. 02.206.0029 www.nikon-image.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달름	19:10
해질	17:26	달진	08:49

찬바람 생생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 강해 춥겠다.

광주	맑음	-3/5	보성	맑음	-5/5
목포	맑음	-1/5	순천	맑음	-2/7
여수	맑음	0/6	영광	맑음	-4/4
나주	맑음	-5/5	진도	맑음	-2/4
완도	맑음	0/6	전주	맑음	-5/4
구례	맑음	-5/5	군산	맑음	-4/3
강진	맑음	-2/6	남원	맑음	-6/4
해남	맑음	-2/5	흑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5/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중음

◇ 주간 날씨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	☁	☁	☁	☀	☀	☀
-4/7	1/6	-4/0	-5/0	-4/3	-2/4	-2/4